학교운동부 기숙시설 점검

도교육청, 전주근영여고 배구부 등 도내 32개 중·고등학교 대상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기숙시설 보유 중·고등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기숙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26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점검학교 기숙시설은 총 32개 중·고등학교다. 학교운동부 기숙시설은 전주의 경우 전주근영여고 배구부, 우석고 유도부, 전주고 야구부 등 7개 중·고등학교가 있고, 군산은 군산고 농구부, 군산상고 야구부 등 2개 학교, 익산은 원광고 유도부, 이리여고 육상 펜싱부 등 5개 중·고등학교가 있다.

또 정읍은 인상고 야구부 등 3개교, 김제는 자영고 씨름부 등 3개교, 완주는 체육중, 체육고 등 3개교가 있다. 순창 2개교, 고창 4개교, 부안 1개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특히 시설안전공제회 보상대상 여부, 적절한 수용인원 등을 비롯해 가스 시설과 전기설비, 가연성 재질 건축사항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사모들 위로 던져 올리고 있다.

"생명수와 같이 사회가 필요로한 인재 되길"

전북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1648명 학위 수여받아

전북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학무위원, 김영 총동창회장, 졸업생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04명을 비롯해 석사 364명, 학사 1,180명 등 총 1,648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남호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는 근면하고 복종하는 인재가, 그리고 지식경제 시대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각광을 받았다면 창조경제 시대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도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며 "전북대가 키우고자하는 '모험생'은 창의인재의 표상이며, 졸업생들이야말로 세상을 이끌 모험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을 탄탄히 닦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말처럼 생명수와 같이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돼 달라"며 "범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물처럼 고난과 역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낮은 곳으로 흘러 궁극적으로 바다가 되는 물처럼 늘 겸손한 삶,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전주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22일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 확대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7개교 210명을 대상으로 총 20회 이론 및 실기수업이 실시된다.

자전거 안전교실은 전문 교육강사가 신청학교를 방문해 올바른 도로주행법, 보호장구 착용법, 자전거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을 유치원생 및 고등학생 등으로 확대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과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은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교육으로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안전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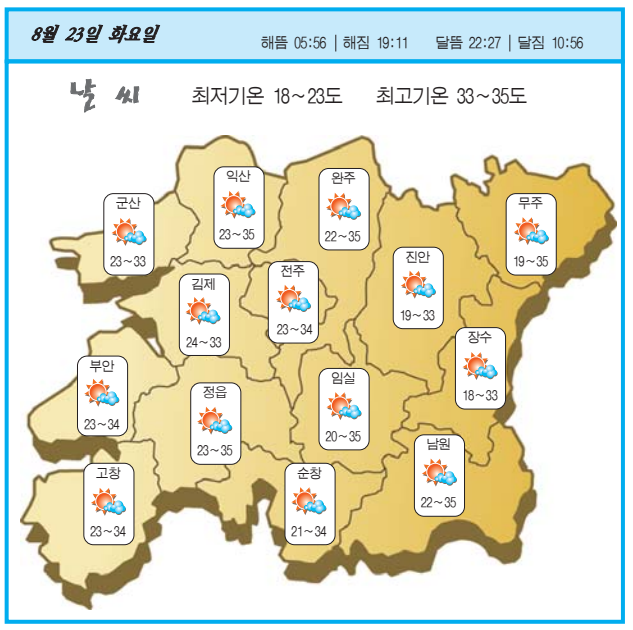
완산구, 의료급여 과다이용 장기입원 점검

완산구(구청장 이용호)는 지난 19일 관내 요양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전주지원)과 함께 의료급여 과다이용 장기입원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잘못된 인식 등으로 부적정 장기입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용 절감은 물론 수급자의 건강한 가정 복귀를 위해 이뤄졌다.

이날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은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전북도, 완산구 생활복지과가 합동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민들이 주인공

다양한 생활문화축제 열린다

26일부터 노송광장서

전주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예술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와 (사)전주문화의집협회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2016 대한민국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참여와 주민 주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생활문화축제는 '全州(전주), 생활문화시장으로 소풍가다'를 주제로, 문화의집 회원과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생활문화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전주 시민들이 참여해 성대한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 모두가 문화융성 시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지역, 생활밀착, 주민 주도'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문화단체들에서 기획하는 일방적인 콘텐츠 제공 방식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주민 네트워크형 문화 콘텐츠 축제라는데 의미가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서 학술세미나와 공연, 전시·체험, 프리마켓 등 4개 분야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마련, 시민들이 생활문화를 보고 즐기며 배우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축제 첫째 날인 26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성대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또, 오후 3시부터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는 전주시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무대가 진행된다. 공연무대 후에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기(旗)를 선두로 대동합굿 한판이 펼쳐지고, 곧이어 평범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 토크쇼가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후 7시부터는 추억과 향수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동놀이 한마당으로 '한 여름 밤의 디제잉(DJing)'이 진행되고, 잔잔한 영화음악과 함께 생활문화 활동 영상이 무대 스크린에 투사되며 축제 첫날을 마무리하게 된다. 축제 둘째 날인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의 공연과 전시·체험이 메인 무대와 각 부스에서 진행된다. 본무대 맞은편에서는 뜻밖의 예술캠프가 놀이터의 형식을 빌려 가족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가가 함께하는 꼼지락 놀이문화를 선보이고, 노송광장 곳곳의 전주시 5개 문화의집 부스에서는 특색이 있는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날 노송광장 주변에서는 '버스트리팅'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쿨(Cool)한~ 장터'는 광장 나무그늘 아래서 재활용품과 생활용품, 수공예품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프리마켓 형태로 진행된다.

/김영재 기자